



위 대 한

캠 보 디 아

O C T O B E R

캠 팀 의 따 뜻 한 1 0 월 이 야 기



Made by 위대한 캠팀

Siem Reap을 가다

2018 10 06 to 10 13



●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Siem Reap을 가다

씨엠립으로 출발



캄보디아의 명절을 맞이해 씨엠립 YMCA, 톤레사프 호수, 그리고 앙코르 와트가 위치해 있는 씨엠립을 방문했습니다.

버스로 6시간 걸리는 씨엠립까지 무사히 잘 도착, 씨엠립 일정 동안 우리의 이동을 책임질 특특 기사님을 만나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Siem Reap을 가다

톤레사프 호수를 가다



씨엠립 일정 2일차 우리 캠팀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톤레사프 호수를 갔습니다.

호수 가운데에 지어진 수상가옥 그리고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Siem Reap을 가다

양코르와트를 가다



●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씨엠립 3일차 양코르왕조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양코르와트를 갔습니다.
친절한 한국어 가이드 수지 가이드님을 따라 양코르와트, 바이온사원, 양
코르툼 등 다양한 사원을 보았고,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Siem Reap을 가다

씨엠립을 즐기다



●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오랜만에 휴식을 가지게 된 우리는 숙소 주변의 펍 스트리트, 서커스 관람, 쇼핑,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는 등 씨엠립에서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Siem Reap을 가다

씨엠립 YMCA를 가다



또 다른 캄보디아의 YMCA가 있는 씨엠립 YMCA를 이틀간 방문하였습니다.

명절인 관계로 많은 학생들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프놈펜 YMCA와는 또 다른 긍정적인 분위기에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하여 씨엠립 YMCA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 좋은 추억을 선물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YMCA Learning Center

2018 10 01 to 10 31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YMCA Learning Center

채윤's Science class



매주 월요일 YLC학생들과 함께 과학 실험을 하였습니다. 모세관 현상을 통한 종이꽃 피우기, 소금과 얼음을 이용한 슬러시 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YMCA Learning Center

지호's Sports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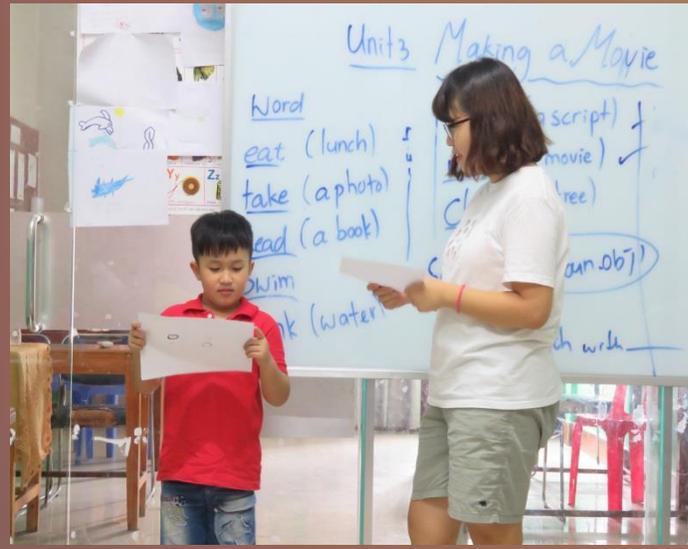


매주 화요일 YLC에서는 지호의 스포츠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영어 및 숫자를 활용한 게임을 하였습니다.



YMCA Learning Center

현지's Music class



주제를 음악으로 잡아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음악을 알려주고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살에서 8살까지의 친구들과는 우리주위에 있는 물건과 나의 몸으로 리듬과 선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고, 9살에서 12살의 친구들과는 팝송을 같이 불러보며 영어와 음악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는 접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YMCA Learning Center

희진's Job class



매주 금요일 YLC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위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YMCA근처 가게 및 노점, 전통시장, 동물원까지 아이들에게 친숙한 직업부터 조금은 생소한 직업까지 직접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YMCA Learning Center

YMCA Learning Center Halloween



Siem Reap
●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Halloween을 맞이해 희진과, YLC 선생님들이 Halloween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꾸민 YLC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페이스페인팅과 워킹쇼를 함으로써 할로윈을 즐겼습니다.

Youth Institute

2018 10 01 to 10 31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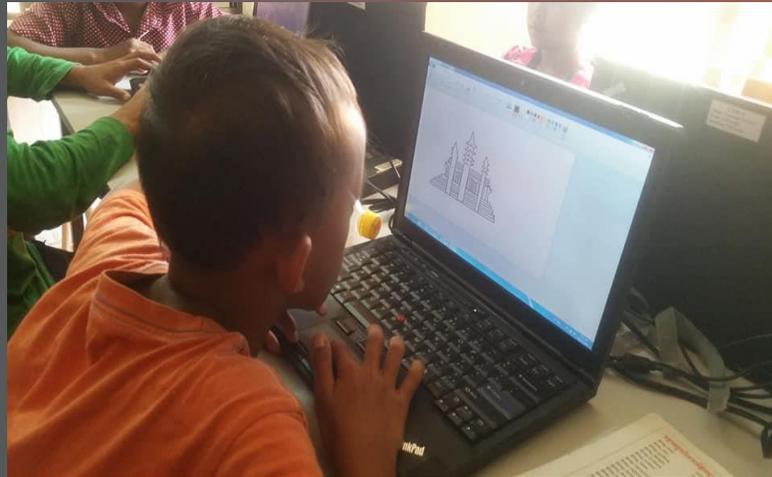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Youth Institute

재완's Computer class



매일 오후 Y.I에서는 재완의 컴퓨터 수업을 했습니다. 비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타자 연습 그림판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등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재미있게 하였습니다.

Youth Institute

캠팀's Class



- Siem Reap
-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캠프
- 개인 소감

Y.I에서 영어수업, 그림 그리기, 축구, 아이들 돌보기 등 아띠들의 일정에 맞춰 수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수업 체계가 잡히지 않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가 Y.I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Youth Institute

Y.I 보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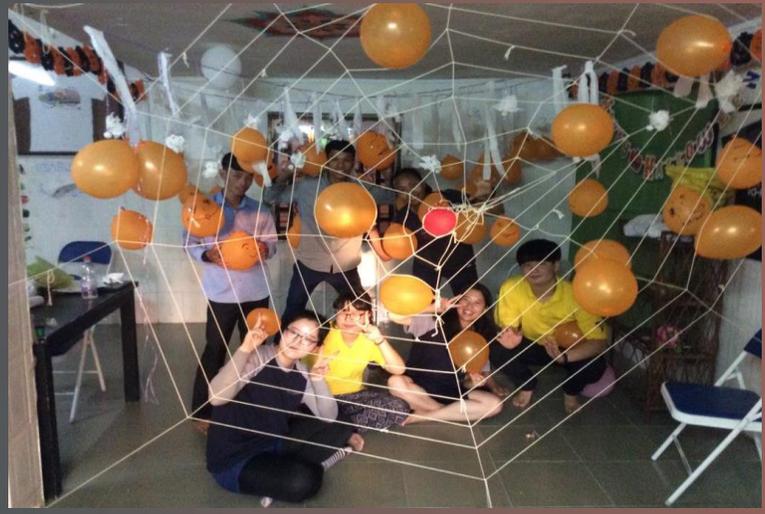


- Siem Reap
-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캠프
- 개인 소감

10월 22일 부터 캠프, 덴마크 친구들, Y.I 담당 선생님인 Nimey와 함께 Y.I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페인트칠을 시작으로 천장 보수 공사, 수도관 설치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Youth Institute

Y.I Halloween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10월의 마지막 날 Y.I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습니다. 직접 꾸민 Y.I에서 학생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었고, 간단한 게임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October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개인 소감

함께한 친구들

With YMCA



10월 23일 캄 팀, 덴마크 팀, YLC 선생님 그리고 직원과 오전에는 10월 한 달간의 YLC, YI 에서의 수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각 나라의 음식들을 준비하고, 다 같이 먹으면서 끝나가는 10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Siem Reap
-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캄팀
- 개인 소감

함께한 친구들

With Danish



프놈펜에 도착한 이후부터 같이 우리와 함께 YLC, YI에서 활동했던 덴마크 친구들이 우리를 초대해 맛있는 간식과 함께 캄보디아의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With Nimey



Y.I 담당 선생님 니메이와 함께 프놈펜 리버사이드를 갔습니다. 주위의 나이트마켓에 가서 쇼핑도 하고 캄보디아 전통음식도 먹었습니다. 또 가끔씩 Y.I 인근 공원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Y.I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서로의 고민, 그리고 캄보디아의 생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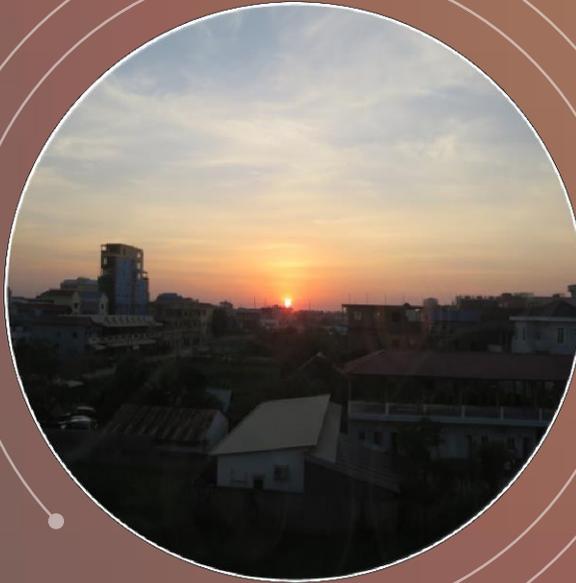
With Sopheap



10월 부터 우리의 현지 담당 코디네이터 소피읍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같이 참여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전반적인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사진으로 보는 캄보디아

October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캄팀

개인 소감

사진으로 보는 캄보디아

우리들의 주말



<Go to the Riverside>



<Go to the market with sok nai and reny >



<아띠 회의 >

- Siem Reap
- YMCA Learning center
- Youth Institute
-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캄팀
- 개인 소감

사진으로 보는 캄보디아

삼시세끼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캄팀
개인 소감

위
대
한
캠
보
디
아
O
C
T
O
B
E
R

사진으로 보는 캄보디아

10월의 우리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 사진으로 보는 캄팀
개인 소감

개인소감

October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 개인 소감

개인 소감

재완

캠보디아에서 생활한지 두달이 지나간다.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한달을 보냈다.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았을 때 욕심 많은 아이들, 공부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본성이 그런것은 아니다. 단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다보니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것이다. 마치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들처럼 아이들도 생존을 위해 적응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끈임없이 생각해 보았다. 지식 전달? 기술 교육?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것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과 교감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함께 길러나가는 것,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많아지지만, 아직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할 수 있는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아이들에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캠프

● 개인 소감

개인 소감

희진

이 곳에 와서 항상 하던 고민은 과연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였다.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한국을 부러워했고,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 나라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교육수준, 생활환경, 경제수준까지 그들에게는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이 곳은 이 곳만의 매력이 철철 넘친다는 것이다.

쉬는 날이 되면 동네에 마을 분들이 하나 둘 씩 모여서 파티를 하고, 저녁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여기 저기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YI에 가면 아이들은 항상 티쳐 하면서 다다다 달려와 안아주고, YLC에서도 아이들을 맞아주러 가면 놀아달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은 주말에도 언제나 우리를 초대해준다.(쉬고 싶을 때도 있다..) 나는 한국에서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정’을 이 곳에 와서 느낀다. 이 곳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면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미 한국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은 그들은 가지고 있다. 바로 ‘사람’이다.

처음 나는 이 곳에서 ‘내’ 활동이 중요했었다. YLC, YI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YI에서는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나에게 점점 ‘내’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고, 함께 웃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겨우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첫 한 달은 ‘벌써 한 달’이었는데, 두 달은 ‘겨우 두 달’이 되어버렸다. 아직까지 나는 이 곳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지에 대한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곳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남은 3달, 이 곳 사람들의 주변인이 되어 함께 잘 살아보고 싶다.

개인 소감

지호

10월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9월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하루하루 집에 가고 싶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고, 집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점점 시원해지는 한국의 날씨를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10월 어느새 나는 이 캄보디아 생활에 적응을 했다. 맛 없던 음식도 이제는 너무나 잘 먹고,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 보다 주민분들, YMCA직원, YLC, YI 학생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 했고, 여전히 덥지만 조금씩 시원해지는 날씨 덕분에 나의 10월은 여전히 힘들지만 나름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10월 한달 간 Y.I에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케어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Y.I 학생들의 생활은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부모님이 없는 학생들, 집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학생, 배가 고픈 학생들.. 그들의 삶을 내가 규정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불우하다. 처음에 Y.I에 갔을 때 너무나 가기 싫었다. 비위생적인 환경, 무질서, 폭력, 폭언, 그리고 내가 가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왔다. 그래서 학생들의 행동에 나는 무조건 NO NO NO라고 대답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면 안 되는지의 설명 없이 단순히 NO NO NO 라고 했다. 그렇게 Y.I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나의 행동에 반대로 NO NO NO를 외쳤다.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런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반대로 내가 이 어린 학생들에게 NO NO NO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도 이런 기분이었겠다고 생각하니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나의 태도를 반성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았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는 교육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 필요하고 어렵다. 여전히 나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반사적으로 NO를 외친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 않던 캄보디아의 생활이 재밌어진 것처럼 점점 노력하다 보면 Y.I 학생 그리고 나의 행동,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 소감

채윤

아침 YMCA 센터를 오는 애들이 나를 발견하면 "티철"하면서 작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아다다다 달려온다. 그 티 없는 맑고 높은 목소리가 상큼한 밝은 미소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매주 수업을 준비하고 Youth Institute와 Ymca Learning Center 두 개의 센터를 오가며 활동을 하느라 바쁜 10월이지만, 우리가 캄보디아에 온지 2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그 시간 만큼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Siem Reap

YMCA Learning center

Youth Institute

함께한 친구들

사진으로 보는 캄팀

● 개인 소감

개인 소감

현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거 같다. 이번 달에는 유독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스스로 많이 던졌던 달이었던 거 같다. 작은 칭찬이 있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다더니, 정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던 달이다.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문득 생각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지키려고 무수히 노력했던 것 같다.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민 양, 나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투쟁이다. 타인과 나 사이의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다독임이, 때로는 아릿하게 눈물이 나는 성장통 같다. 아직도 나는 자라고 있는 모양이다.

시엠립 YMCA에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시엠립 YMCA는 작았지만, 그렇기에 아늑했고, 소박한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했던 짧기 만한 2일은 좋은 추억과 함께, 다시 가고 싶다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정해진 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고 싶다.

몸은 고됐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달이다. 활동 중에 에코백이 필요한 데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직접 천을 떼와서 만들기도 해보는 데 점점 아이들과 함께할 남은 날들을 그려가는 게 아쉽다.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나에게 하나의 꽃이 된 것 같다. 나도 아이들에게 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푸르게 적응을 할수록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 같다.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하려면 수없이 토의하고, 욕심을 깎아내고, 계획하고, 수정해야한다는 것을 배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요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듯, 오랜 시간 걸쳐서 빚어낸 우리의 열정은 빛날 것이다. 오래도록, 붉게 타오르며

THANK YOU

11월 보고서도 기대해 주세요~~